

# IBKS Spot Comment

음식료/유틸리티/통신

김태현

02) 6915-5658  
kith0923@ibks.com

건설/부동산

조정현

02) 6915-5660  
controlh@ibks.com

## [대형원전]

### APR1400, 미국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부상

#### AP1000 외 대안 검토, 한국 재부상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형 원전 확대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AP1000) 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유력 후보 중 하나로 한국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DOE는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해 한국전력과 한수원 (APR1400) 기술의 미국 대형 원전 적용 및 금융 지원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미국이 AP1000만을 고집하기보다, 동맹국의 대형 노형과 공급망을 함께 점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의 강점은 검증된 실행력. 다만, 독자 진출에는 여전히 제약 존재

한국은 이미 검증된 선택지다. [미국 원전, 한국이 Only One!, 26.03.13]에서도 언급하였듯, APR1400은 ▶ 2019년 미국 NRC 설계 인증을 받았고, ▶ UAE 바라카 원전을 완공하며 동맹국 내에서 드문 최근 해외 대형 원전 시공 실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미국 진출에는 여전히 제약 가능성이 존재한다. 웨스팅하우스와 한전, 한수원은 2025년 1월 지식재산권 분쟁에 합의했지만 세부조건이 공개되지 않았고, 시장에서는 이 합의가 한국의 북미 독자 수주 범위를 일정 부분 제약할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상 가능한 두 가지 대안: 실무의 유연화와 JV 구체화 가능성 주목

그러나 이번 기사는 기존 합의의 실무적 유연화나 협력 구조 재정립 가능성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모든 프로젝트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기보다, 한국(팀코리아)의 실행력을 활용하고 라이선스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가 이미 일반화돼 있다. 대표적으로 KBR은 에틸렌, 암모니아, 정유 공정에서의 사업구조를 주 EPC(Main contractor)에서 기술 공여자(Technology provider)로 전환하며, 리스크는 줄이고 확실한 라이선스 수익으로 전환한 성공 사례가 존재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번 흐름이 작년부터 거론되어 온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JV(합자회사) 또는 공동사업 구조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중심의 사업 틀을 유지하되, 실제 수행 단계에서는 한국의 EPC, 공급망, 자금 참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는 독자 진출과는 다른 형태의 팀 코리아 시나리오로 해석할 수 있다.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